

모범독림가 金基運씨 편

草堂林의 敎訓

- 불모지에 나무심어 신화창조 -

최 동 균/본회 전무이사



가지치기등 육림이 잘되어 있는 테다 소나무림, 수간이 모두 통직하다.

1. 서 언

필자가 초당림(草堂林)을 다시 찾게 된 것은 거의 7년여 만의 일이다. 초당림하면 임업인이면 거의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약 모른다면 백제약품(百濟藥品) 그룹의 총수 김기운(金基運)회장이 이룩한 전남 강진(康津)의 칠량면 명주리 1,000여ha의 불모지에 신화를 이룩한 산림이라고 하면 거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래도 모르는 임업인이 있다면 그런분에게는 이 글을 읽기를 강요치 않겠다. 그러나 한번쯤은 가서 보고 오라고 권하고 싶다.

초당림의 신화는 백제약품 그룹 총수인 김기운회장이 약품도매업종 회사만을 경영하여 오던중 해방과 6.25의 격동기 이후, 당시 황폐되었던 산림에 대하여 항상 안타까움을 금치못하고 지내오던 터에 1960년대 후반기에 드디어 전남 강진에 황폐된 임야를 매입하고 1969년 봄부터 조림을 시작하는데서부터 이룩되었다.

위낙 황폐가 심하고 자갈밭(石礫地)이 많아 구덩이 마다 객토(客土)를 하면서 심느라 공정(功程)도 오르지 않고 시행착오(施行錯誤)를 연발, 오직 자신의 실패만이 산교훈으로, 종래에는 노하우로 축적되어 오늘의 1,000여ha의 대단위 조림지를 이룩 하였다는 이야기는 기히 본지 1991년 4월호 “독립가탐방 제1호 김기운씨 편”으로 소개된바 있다. 따라서 중복된 이야기를 피하고 7년여만에 다시 찾은 새로운 느낌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초당림의 특징

초당림의 특징은 첫째 사유림으로서 1단지(團地)가 1,000여ha에 이르는 대규모에 놀라게 되고 조림율이 거의 정상에까지 식재된 100% 가까운 조림율에 놀라게 된다.

두번째로는 테다소나무의 대단위 조

림이다. 테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남단(南端)에서만 생육이 겨우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인데 이렇게 대면적에 모험조림을 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모험이 아니다. 우리나라 남단 어디에서도 가능하다는 확신과 함께 우리 임정사(林政史)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셋째 튜립나무(목백합) 대단위 조림이다. 튜립(Liriodendron tulipifera L.)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관상수(조경수)로 식재된곳은 많으나 이렇게 대면적 조림을 행한곳은 본인이 알기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yellow poplar로 널리 알려진 조림을 많이 하고 있는 수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초에 경기도 임업시험장(당시 安養소재)이 이 수종에 대한 발아시험 등 양묘를 필자가 맡아하였고 본격적으로 보급에 힘을 기울여 필자로서는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수종이다.

10여년전 필자가 초당림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오직 한가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이 목백합나무 조림을 너무 산정상에까지 수종배치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다. 목백합은 토질이 비옥한 토심이 깊은 곳에서나 되는 수종으로만 알고 있었고, 아마도 김기운 회장님은 임업전문가가 아니었으므로 시행착오로 너무 산복(山腹) 이상의 척악지에까지 수종배치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번 기회에 한낱 부질없는 생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만약 그런곳에 다른 필적할 만한

수종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얼른 적수(適樹)가 생각나지 않는다. 목백합은 척악지에서도 적응력이 강한 수종임을 산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던 김회장이 어떻게 그런 것을 착상(着想)했으며 적지적수(適地適樹)의 선구적인 안목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관리상태다. 이러한 1,000여 ha의 넓은 임지내에 가지치기를 비롯한 간벌등 육림실태는 참으로 훌륭하였다. 임도(林道)만해도 40여km에 이르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나무 시절부터 철저한 가지치기·간벌등 육림에 의한 수간(樹幹)이 통직(通直)한 아름답리 울창한 숲. 한마디로 수해(樹海)를 이름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끝으로 이들 수종에 대한 재질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도착한 즉시 준비된 테다소나무와 목백합의 제재목을 구경할 수 있었다. 테다소나무의 판재(板材), 각재(角材)는 수입종인 라디에타 소나무와 비교할 때 옹이도 훨씬 덜하며 색상(色相)이 좋아보였다. 물론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강도(強度)비교는 예측할 수 없었으나 라디에타에 비하여 약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학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테다소나무가 라디에타소나무에 비하여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목백합의 경우도 변재(邊材), 심재(心材)의 색상이 확연히 구분이 되나 색상이 깨끗하고 아름다워 일반 포플러류에 비할바가 아니다. 어차피 힘받이용으로는 안되지만 내장재(內裝材)로서



1998. 5. 23 김기운 회장으로부터 초당림에 초대받은 일행들

는 훌륭한 재질이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재질면에서도 다른 어떤 수종보다 경제성이 덜 할리는 없다고 판단됨으로서 대표적인 조림성공림으로서의 후학들을 위한 교육장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3. 결 언

조림성공지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테다소나무와 목백합나무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성공지는 없다. 이것이 유일한 테다·목백합 조림성공지 일 것이다. 이는 김회장님의 앞을 보는 탁월한 안목과 평소에 기업이운을 사회환원한다는 거룩한 철학과 이념이 있기에 현재까지도 한푼의 소득없는 나무바다에 계속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기업활동으로 기업이운이 있었기에 가능하다지만 돈이 아무리 있다손 치더라도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없이는 산림에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막이나 덴마크의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낸 선구자, 달가스나 구론드비히가 아니더라도 불모지에 나무심어 이만큼 신화를 이룩한 김기운 회장의 인간 상록수 정신을 배우고, 하면 된다는 인간승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남은 일은 이들 수종에 대한 용도개발에 의한 수요개발이다.

테다소나무는 소나무류니까 여러방면의 용도에 쓰이겠지만 목백합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용재로서의 개발은 되어있지 않다. 임업연구원등 당국은 이들 수종에 대한 용도를 개발, 우리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조림자들이 심어만 놓고 수요가 없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과거 이태리포플러를 속성수라해서 적극 조림을 권장해 놓고 벌기령에 이르렀을 때 용도개발이 되지 않아 수요가 없어 조림자들이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나무젓가락, 성냥개비, 어름과자 꼬지등은 포플러류로만 만들 수 있도록 고시를 하여 줌으로서 종래에는 포플러류가 공급이 달렸었던 과거 경험이 있다. 이와같이 임정당국은 수요개발이 되도록 사전에 정책개발을 해주는 것이 임정당국의 할 일이다.

김기운씨는 육영사업으로도 유명하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동량(棟樑)을 키운다고 하듯이 실제 전남 무안에 일찍이 백제여상을 세워 여성교육에도 전념하였고 수년전에는 초당대학교(草堂大學校)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실제 나무도 심어 동량을 키우고 있고 교육으로도 인재를 동량으로 키우고 있는 행동실천가이다. 이와같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은 그의 초당대학교 교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올바른 認識을 共感하여 그 共感을 行動으로"라는 교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